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그 특징 :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중심으로 *

정영철(동국대 강사, 사회학)

1. 들어가며

남북한이 통일을 향하는 길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외부의 시선으로 본다면, 동양이라는 커다란 틀에서의 문화적 요소를 꼽을 것이며, 내부의 시선으로 본다면 강한 민족적 감정일 것이다. 비록 세대가 바뀌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이질성이 커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민족주의적 감정은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가치체계 속에 공통성으로 남아 있다. 통일이 인위적인 동질성의 확보, 체제의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간의 통일, 즉 사회문화적 동질성의 확보와 새로운 가치체계의 창출은 통일의 원동력

* 이 논문에 비판과 격려를 해 주신 익명의 두 분 논평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논평에 충분히 수정과 보완을 하지 못한 책임성은 전적으로 필자에게 있음을 밝힌다.

이자, 통일을 통일답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북한에서 보이고 있는 민족주의에 대한 자세와 입장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공동체의 형성을 탐구하는 데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고찰은 대체로 주체사상의 민족주의적 성격 혹은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변질된 북한 민족주의의 부정적 측면의 고찰 그리고 민족주의를 통해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들의 독자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¹⁾ 특히, 1990년대 이후의 북한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그 논리의 역사성을 소홀히 하고 체제 위기에 따른 일방적인 방어논리로만 분석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결국 북한의 민족주의를 통일과 관련된 정치적 함의는 배제한 채 오로지 북한의 통치 필요에 의해서만 변용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민족주의는 암스트롱(Amstrong)이 지적한 대로 대외적 자주성의 측면에서조차도 국가 건설 초기부터 상당한 자율성과 고유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내적 동력이었으며, 사회주의가 붕괴한 이후에도 그들의 생존을 이어가는 중요한 정치적 기능을 하여 왔다.²⁾ 또한, 여기에 한반도의 분단상황에 따르는 민족·민족주의 개념의 현실화 요구에 따라 부단히 변화하여 왔다. 이러한 북한 민족주의의 역사는 세 가지 요인, 즉 주체사상의 체계화에 따른 이론적 정식화의 필요성, 한반도 분단과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 대내·외적 현실의 변화

1)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최근의 연구물로는 진덕규, 『북한 통치이념에 있어 민족주의의 원용에 대한 분석』(서울: 통일원, 1991); 우 정, 『분단시대의 민족주의』(서울: 다나, 1996); 박호성,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서울: 당대, 1997); 전상인, 『북한 민족주의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김정훈, “남북한 지배담론의 민족주의 비교 연구: 역사적 전개와 동질이형성”(연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등이 있다.

2) 찰스 암스트롱, “북한 문화의 형성: 1945~1950”, 『현대북한연구』, 제2권 1호(1999), 148쪽.

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북한의 민족주의가 어떠한 역사적 궤적을 그려 왔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2. 민족, 민족주의, 사회주의

1) 민족과 민족주의

한스 콘(Hans Kohn)이나 겔너(Gellner)에게 민족은 민족주의적 감정의 근대적 구성물이다. 즉, ‘민족이 민족주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가 민족을 창조’하는 것이다.³⁾ 이러한 민족주의로부터 민족의 형성을 논하는 입장은 홉스봄(Hobsbawm)이나 앤더슨(Anderson)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홉스봄은 민족의 형성을 위로부터의 조작과 ‘전통의 창조’(invention of tradition)를 통한 민족의 전통의 오랜 역사성의 창조가 이루어졌으며, 앤더슨 역시 근대 자본주의의 인쇄술, 대중적인 표준어의 보급 등으로 민족주의적 감정의 실체화가 가능했다고 주장한다.⁴⁾ 여기에 르낭(Lenan)은 의지(will)와 집합적 감정(collective sentiments)을 민족 형

3) Kohn, Hans, 백낙청 역, “민족주의의 개념”, 『민족주의란 무엇인가』(서울: 역사비평사, 1981), 18쪽; Gellner, Ernest, *Thought and Change*(London: Weidenfelt and Nicolson, 1964), ch. 7.

4) Hobsbawm, Eric J., 강명세 역,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Hobsbawm, “Introduction: Inventing Tradition”, in Eric Hobsbawm & Terence Ranger (ed.),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p. 1~14; Anderson, Benedict, 윤형숙 역,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서울: 사회비평사, 1991).

성의 기초로 제시하며, 따라서 그에게 민족은 매일 매일의 국민적 결사로서 가능해진다.⁵⁾ 결국, 이들의 논의에 따르면 현재의 민족은 위로부터 창조된 창조물이거나 공동의 상상을 통해 가능한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y)일 뿐이다.

다른 한편, 민족의 창조를 근대화의 전략과 그 결과로 분석하는 이들도 있다. 겔너(Ernest Gellner)는 민족의 형성요인으로서 의지(will)와 문화(culture)가 가장 중요하며,⁶⁾ 문화에 의한 민족주의 형성은 농경문화에서는 가능하지 않으며 오로지 산업사회에서만 가능하다고 한다.⁷⁾ 틸리(Tilly)와 기든스(Giddens)는 민족 형성에서 전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럽에서의 빈번한 전쟁과 전쟁을 치르기 위한 중앙집권적 국가의 필요와 관료제도의 발달이 민족·민족주의의 강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⁸⁾ 이러한 서구 이론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프랑스혁명을 전후한 시기, 즉 18세기를 전후해서 민족은 발생했으며 이의 역사적인 뿌리를 강조하더라도 결국은 근대가 가져온 산물이라는 점에서 민족은 기껏해야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아주 최근의 현상임을 강조한다.

반면, 인용하는 위와 같은 민족 형성 이론을 “유럽과 같은 중세를 장기간 지방분권적 봉건사회의 형태로 경험한 지역과 민족에만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좁은 한계를 가진 이론으로서 한국 민족을 비롯하여 이미 고대와 중세에 중앙집권적 통일국가와 민족을 형성하였던 민족들에게는 들어맞지 않는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민족 형성의 객관적인 요소들로서 언어, 지역, 문화, 역사, 혈연 등을 들면서 비서구 사회에서도 민

5) Gellner, Ernest, *Culture, Identity, and Politics*(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 8.

6) Gellner, Ernest, *Nations and Nationalism*(New York :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 53.

7) *ibid.*, p. 8.

8) Tilly, Charles, 이향순 역, 『국민국가의 형성과 계보』(서울 : 학문과사상사, 1994) ; Giddens, Anthony, 진덕규 역, 『민족국가와 폭력』(서울 : 삼지원, 1991).

족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역시 근대 민족으로의 발전에 있어 ‘정치, 경제의 공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선민족, 전근대민족, 근대민족으로 민족의 역사적 형성을 구분하고 있다.⁹⁾ 노태돈 역시 한국 민족의 형성을 논하면서 근대 자본주의 발흥의 충격을 인정하면서도, 전근대에 있어서의 인간공동체와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전근대 인간공동체와 근대 인간공동체의 동질성과 차별성에 착안하여 ‘전근대민족’과 ‘근대민족’이라는 도식으로 우리 민족의 형성을 이야기하고 있다.¹⁰⁾ 이러한 주장은 홉스봄이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성을 인정하고 있듯이 고대나 중세에 이미 통일적인 중앙집권적 국가를 형성하고 상대적으로 순수한 혈통을 간직한 지역에서의 민족 형성은 유럽과는 다른 경로 혹은 다른 유형으로 존재했음을 일깨워준다. 이처럼 전근대의 인간공동체 혹은 전근대와 근대 간의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근대 민족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앤터니 스미스(Anthony D. Smith)의 논의는 민족주의론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준다. 스미스는 민족이 형성되기까지의 연속적인 실체로서 족(ethnic)의 개념을 상정한다.¹¹⁾ 그는 폴란드를 예로 들면서, 근대이전(pre-modern)의 족과의 결합(기억, 신화, 전통, 관습, 상징, 인조물 등등)이 없다면, 근대적 의미의 폴란드 민족의 재형성(re-construction)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¹²⁾

이와 같은 민족의 형성과 개념 규정은 곧바로 민족의 형성요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민족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서구 유럽의 역사가 보여 주듯이 민족의 탄생과 발전은 절대주의 왕정이 붕괴하고 자본주의가

9) 신용하, “민족 형성의 이론”, 『민족이론』(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5), 13~58쪽.

10) 노태돈, “한국 민족 형성시기에 대한 검토”, 『역사비평』, 겨울호(1992), 16~25쪽.

11) Smith, Anthony D., *The Ethnic Origin of Nations*(New York: Basil Blackwell, 1986).

12) Smith, Anthony D., “The Nation: Invented, Imagined, Reconstructed?”, in Marjorie Ringrose & Adam J. Lerner(ed.), *Reimagining The Nation*(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1993), pp. 20~23.

발흥하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서유럽에서 민족은 자본의 혁명, 문화의 혁명, 국제체계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가능했다. 민족이 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봉건적인 지방분권의 고립성과 폐쇄성을 극복해야 하며 공동의 언어, 문화, 국가를 향유할 때 가능하다. 비록 ‘1 민족 1국가’(one nation, one state) 명제가 신화에 불과한 것이라 할지라도 중앙집권적 경계의 설정은 민족의 형성에 거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¹³⁾ 이런 점에서 봉건성을 결정적으로 타파한 자본주의의 발흥은 민족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의 통합과 국가로의 집중화를 가능케 한 역사적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앤더슨이 인쇄자본주의의 발전과 순례의 역사를 강조한 것은 바로 자본주의가 가져다준 기술의 진보와 교통, 통신의 발달이 민족의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는 보여 주는 한 측면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유럽과 같은 봉건적 분산성을 오래 전에 극복한 상태에서 자연적 공고성을 유지해 왔던 동아시아 나라 등 비유럽 국가들에서 민족의 형성은 그 시기와 형성에 있어서 유럽과는 다른 경로와 유형을 보여준다. 이는 유럽적 ‘근대민족’의 형성 이전에 이미 전근대민족 혹은 아시아 민족 형성의 독자성이 존재함을 말해 준다. 그리고 이러한 독자성은 민족주의의 형성에 있어서도 유럽과는 다른 모습일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시아 제민족의 민족주의를 저항적 민족주의라고 정의하지만, 이는 근대 이후 서세동점(西勢東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반(反)제국주의적 민족운동의 형태일 뿐 그것이 아시아 민족과 민족주의 형성의 역사를 다 포괄하지는 못한다.

민족주의는 자신들만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일종의 신념이자 행동으로

13) 젤너는 문화가 집단적 아이덴티티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함으로써 민족주의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 데 일조한다고 한다. 그리고 문화적 공동체의 형성은 1민족 1문화 혹은 1국가 1문화(one state, one culture)와 같은 관념을 만들어 내지만 이것이 반드시 지배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젤너, 1987). 마찬가지로 1민족 1국가도 관념으로서 창조되지만 반드시 지배적인 현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된다. 민족주의는 근대 민족국가 창설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자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되어 왔다. 민족주의는 민족을 역사적 실체로 인정하고 이를 가장 으뜸가는 가치 단위로 인식한다. 거의 대부분의 민족주의 운동은 자신들만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는 민족을 담는 그릇이자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경계의 역할을 한다. 이를 두고 마이네케(Meineke)는 국가민족(staren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가가 민족을 주조한다는 입장을 나타낸다. 레자이(Rejai)와 엔로이(Enroe)도 형성의 순서에 의한 nation-state와 state-nation의 구별의 필요성을 지적한다.¹⁴⁾ 린쯔(Linz)와 스테펜(Stephen)은 이를 더욱 강조하여 민족주의가 지식인들과 일반인들 사이에서 상상되기 수세기 전부터 국가 형성은 시작되었으며, 또한 근대국가의 형성이 민족주의의 확대와는 별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¹⁵⁾ 톨리나 기든스 역시 이러한 국가론적 민족주의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 톨리(Tilly)에 의하면, 민족주의는 2세기 전 다른 두 가지 현상으로서 나타났는데 그 하나가 ‘국가가 주도하는’(state-led) 민족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를 추구하는’(state-seeking) 민족주의라고 한다.¹⁶⁾ 베버는 정치공동체와 정치적 행위를 ‘공통의 민족성에 대한 믿음’의 기본적 영감이자 기초로 간주하였으며, 이러한 믿음은 다시 공통의 기원을 지니고 있다는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었다.¹⁷⁾ 이러한 견해는 결국 민족주의는 정치적인 조직체를 형성하는 역사의 동력으로 이해되며, 민족국가를 이루지 못하는 민족운동은

14) 신옥희, “분석수준과 분석단위에 관한 새로운 논의”, 김달중·박상섭·황병무 공편,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영역과 쟁점』(서울: 나남출판사, 1995), 45쪽의 주 80)에서 인용.

15) Linz, Huan J., & Stephen, Alfred, “Stateness, Nationalism, and Democratizatio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Baltimore: Johns Hopkins Univ., 1996), p. 20.

16) Tilly, Charles, “States and nationalism in Europe 1492~1992”, *Theory and Society*, Vol. 23/1(Kluwer Academic Publisher, 1994), p. 133.

17) Smith, Anthony D., 임지현 역, “민족주의와 고전사회학 이론”, 『민족문제와 마르크스주의자들』(서울: 훈겨레, 1986), 47쪽.

실패한 혹은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된다.¹⁸⁾ 이러한 ‘국가론적 입장’은 민족을 담는 그릇으로서 국가를 상징하며 국가를 형성하지 못했을 경우 민족의 형성과 발전도 지체되고 심지어는 민족으로서 형성될 수 없음을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독일 등의 문화적 민족주의는 정치적 통일과 독립 없이도 민족주의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화적 민족주의는 동일언어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찬양할 때 가능하다.¹⁹⁾ 하지만, 문화적 민족주의도 일정한 계기가 마련되고 정치적 각성이 일어남에 따라 결국은 정치적 민족주의로 전화한다.

2)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마르크스는 『공산당선언』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민족국가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데, 그 이유는 민족국가가 부르주아들의 억압기관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²⁰⁾ 따라서 마르크스는 일국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희망을 뒤로 한 채, 전세계 노동계급의 연대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을 예견하였다. 사실, 마르크스에게 민족은 계급갈등을 은폐하고 자신들의 계급이익을 보편적인 이익으로 나타나게끔 해 주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일 뿐이었다. 따라서 마르크스에게 민족주의 감정은 어떤 가치 있는 주장에 협력할 때 호의적인 형용사로 값이 매겨진 반면, 민족주의 감정이 진보를 제지할 때는 편견으로 처리되었다.²¹⁾

18) 김용직, “민족주의, 국제관계, 근대성”,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영역과 쟁점』(서울 : 나남출판사, 1995), 157~158쪽.

19) 조민, 『한국민족주의 연구』(민족통일연구원 : 1994), 11쪽

20) Vogler, Carolyn M., *The Nation State : The Neglected Dimension of Class*(Aldershot : Gower, 1985), p. 2.

21) Davis, Horace B., 백낙청 편, “마르크스 민족이론의 비판”, 『민족주의란 무엇인가』(서

마르크스 역시 서유럽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분산된 봉건적 질서의 해체와 부르주아 주도의 자본주의의 형성은 시장의 통합과 더불어 일정한 경계의 도입과 동질적인 단위로의 통합을 가져 왔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그에게 민족은 실체가 아니었고, 프롤레타리아 해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사실, 마르크스는 근대국가의 출현을 곧 근대 자본주의의 출현이라는 거대한 자본 혁명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자본 혁명을 담당했던 세력은 다름 아닌 신흥 부르주아 세력이었다. 이들은 국가를 통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적 담론의 유포와 새로운 세계질서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국가를 보편적 단위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부르주아 세력에 의해 포위된 국가를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로 인식하였고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자에게 국가는 곧 극복해야 할 대상이자 미래에 소멸할(withering away) 운명을 지닌 정치체였다. 엥겔스가 민족체로부터 민족형성의 요인을 주장하고, 마르크스가 아일랜드 민족해방운동이 영국 혁명의 성과를 기능할 것이라는 주장으로까지 발전했으나,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에게 민족주의 운동은 결코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레닌은 마르크스보다 좀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의 민족자결론에서 보이듯이 모든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과 자연스러운 사회주의로의 통합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였으며,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민족해방운동이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의 중요한 동력이 된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²²⁾ 그러나 그 역시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은 사회주의의 후비군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진다고 함으로써 민족주의에 대한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말았다. 한편, 폴란드 독립을 둘러싸고 로자 룩셈부

출 : 창작과비평사, 1981), 115쪽.

22) Lenin, V. I., 편집부 편,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자결권”, 『마르크스 - 레닌주의 민족이론』(서울 : 나라사랑, 1989), 200 ~ 211쪽.

르크는 민족주의 운동을 배격해야 할 사회주의 운동의 적으로 상정함으로써 민족주의에 대한 레닌과의 뚜렷한 대비를 보여 주었다. 마르크스주의적 민족개념을 가장 뚜렷이 보여 주는 예는 스탈린의 민족개념이다. 그는 “민족을 언어, 영토, 경제생활 그리고 공통의 문화 속에서 나타난 심리적 구조를 갖춘 역사적으로 성장한 영속적인 공동체”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중 어느 한 요소라도 빠지면 민족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²³⁾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은 마르크스주의의 예언이 실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급과 민족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논의도 잘못된 예측이었음을 보여준다. 민족 갈등이 한 국가 내의 혹은 민족 내의 계급 갈등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금까지의 계급투쟁 공간은 국제적이라기보다는 민족국가적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다.²⁴⁾ 또한 사회주의 국가간에는 엄밀히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됴에도 불구하고, 중·소 분쟁 등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충돌은 민족주의 감정과 민족 이익이 국제주의 혹은 계급주의에 종속되거나 소멸될 것이라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사고에 커다란 이론적 모순을 안겨주었다.²⁵⁾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민족주의는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기보다는 항상 다른 사상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계급적 태도와 민족주의적 태도는 반드시 대립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민족주의와 계급이 결합한 예는 주로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에서 볼 수 있다. 서구에서 파시즘과 같은 극우 민족주의 논리가 사회주의 및 민주주의와 첨예하게 대립하던 것과는 달리 제3세계의 민족해방운동은 자연스럽게 민족주의와 결합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제3

23) Stalin, Joseph, 편집부 역,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 『마르크스 - 레닌주의 민족이론』(서울: 나라사랑, 1989), 320쪽.

24) Vogler, Carolyn M., *The Nation State: The Neglected Dimension of Class*, pp. 2~3.

25) Davis, Horace B., 백낙청 편, “마르크스 민족이론의 비판”, 123쪽.

세계에서의 민족은 아직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민족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던 반면에, 또한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계급 분화의 내부 구조와 외세에 대한 1차적인 대립이 가장 중요한 모순관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족과 계급의 문제가 중첩되고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이 일차적 과제로 주어졌던 동아시아의 사회주의는 민족적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되었다. 드브레이(Regis Dbray)는 이러한 민족과 계급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민족사회주의’로 정리하고 있다. 그는 사회주의 운동을 위해 민족주의를 배제해서는 불가능하거나 사회주의가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는 민족주의와의 동맹 없이는 사회주의의 승리를 상상할 수도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²⁶⁾ 즉, 그는 사회주의는 민족주의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민족주의를 외면하는 사회주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²⁷⁾

다른 한편, 콜라코프스키(Kolakowski)도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운동의 국제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민족적 이데올로기와 충돌할 때마다, 국제주의는 항상 패배하였다고 한다.²⁸⁾ 스탈린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민족들의 ‘용광로’는 사회주의 붕괴 이후 오히려 민족주의 분출의 용광로로 전변되어 버렸다. 이는 민족주의가 계급의식에 의해 저절로 소멸되거나 사회주의와 융화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처럼 민족주의는 사회주의의 명시적 배척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잠재된 채로, 혹은 제3세계에서는 분명한 반제국주의 혹은 반서구적 운동의 주요한 원천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거의 모든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은 사회

26) 박호성,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120쪽.

27) 드브레이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임지현의 『민족문제와 마르크스주의자들』 중 스미스와 드브레이의 인터뷰를 참조.

28) Kolakowski, L., 임지현 역, “마르크스주의 철학과 민족의 실제”, 『민족문제와 마르크스주의자들』(서울: 훈겨레, 1986), 55쪽.

주의와 민족주의의 강고한 결합의 역사를 보여 주고 있다.

결국 민족·민족주의는 서유럽의 역사적 특성이 일반화되어 왔으며, 이로써 근대주의적 관점에서 민족문제가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서유럽과 다른 상황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및 동아시아, 나아가 제3세계 민족주의의 역사는 서유럽의 민족주의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북한의 경우도 민족주의에 대한 근대주의적 관점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영속주의적 입장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는 민족주의가 민족을 창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민족적 실체가 국가로 드러나고 이들 국가민족의 발전에 따라 민족주의 사상이 발생했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에 있어서도 이론과 현실 간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사회주의의 기본 입장이 반(反)민족주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회주의 지향 세력들이 민족주의와 친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써 민족사회주의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조선로동당의 우당인 사회민주당은 민족사회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정도로 민족주의와의 친화성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이 그간 민족주의에 대한 명시적인 부정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민족주의적 사상 감정을 자신들 사회주의에 접목시켜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북한 민족주의 이론의 전개

1) 민족개념의 변화

해방 이후 북한은 식민지를 갖 벗어나 제일 시급한 과제로 건국, 건당, 건군을 주창하였다. 비록 김일성이 민족주의적 감정을 이용하면서 주체적인 국가 건설 노선을 제기하였으나, 건설 초기에는 소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북한의 민족개념이 스탈린의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그러나 스탈린의 사망과 격하운동 그리고 중·소 분쟁 등으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약화되고,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을 거쳐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하는 시점에서 점차 ‘주체’를 강조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민족개념과 함께 민족의 독립을 강조하고, 경제와 함께 언어나 국가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특히 1960년대 ‘자주노선’이 확산되면서 소련을 위시한 국제 공산주의 진영의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서 독자적인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노선을 걷기 시작하며, 민족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1960년 발행된 『조선말사전』에서는 민족을 “언어, 지역, 경제생활 및 문화의 공통성에 의하여 표현되는 심리적 상태의 토대 위에서 발생하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라고 정의한다. 자주노선이 한창 무르익어 가던 시기에 출판된 『대중정치용어사전』(1964)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민족이란 언어, 영토, 경제생활, 심리상태(문화의 공통성에 의하여 표현되는)의 공통성에 의하여 오랜 역사를 거쳐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을 말한

다. 이 네 개의 공통성 중 어느 하나가 빠져도 그것은 민족으로 되지 못한다) …… 민족은 자본주의의 발생과 함께 나타난 역사적 산물이다. 민족에는 부르조아 민족과 사회주의 민족이 있다. 민족은 역사적 현상이므로 그 시초를 가질 뿐 아니라 종말도 가지고 있다 …… 전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되고 모든 민족들이 유일한 공산주의적 경제체계를 가지게 되면 점차 민족들의 합류가 실현될 수 있다.

여기서 위의 주장은 아직까지 스탈린의 민족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동·서독의 자본주의 민족과 사회주의 민족으로의 구분과 동일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후 김일성의 언급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자주적인 입장에서 민족개념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판단된다. 이런 시도는 1970년판 『철학사전』에서 볼 수 있다. 민족은 “언어, 지역, 경제, 생활문화와 심리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라 하여 여전히 스탈린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1964년의 김일성 논의를 첨부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적 공통성은 우리 나라에서 일찍부터 봉건적인 강력한 중앙집중적 통일적인 국가가 세워지고 이 틀 안에 언어, 지역, 문화의 공통성, 경제생활의 공통성이 점차로 이루어져 가는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었다”라고 설명한다. 이는 우리 민족을 근대로부터 출발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론적 입장에 근거하여 이미 오래 전에 민족이 형성되었음을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여겨진다.

1973년의 『정치사전』을 보면, 민족은 “언어, 지역, 경제생활, 혈통과 문화, 심리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계속해서 “민족을 특징짓는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언어의 공통성이다. 그것은 언어와 문자의 공통성에 의하여서만 경제생활과 문화와 심리의 공통성이 이룩되고 또한 그것

이 공고한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²⁹⁾라고 함으로써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1964년 김일성의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라는 논문에서부터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³⁰⁾ 이는 헤르더(Herder)가 언어의 동일성이 민족의 가장 중요한 형성 요인이자 징표라고 한 언어적 민족주의와 유사하다. 다른 한편, 위의 정의에는 혈통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당시 혈통이 추가되어 있는 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것은 첫째로, 김정일의 등장에 따라 혁명이 대를 이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우리 민족의 강한 혈연적 전통을 민족개념 속에 포함하고자 한 의도라고 보여진다.

1960년대에 시작되고 1970년대에 강화된 주체사상은 1980년대에 들어와 확고한 자리를 확보하였다.³¹⁾ 또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제창되면서 민족의 문제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6차 당대회 토론에서 김중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이번 대회에서 내놓으신 통일방안은 바로 민족문제에 관한 우리 당의 이러한 근본 입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 민족의

29) 『정치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30) 김일성은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선인민은 피줄과 언어를 같이하는 하나의 민족입니다 …… 지금 남조선 사람들이나 북조선 사람들이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으며 같은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자기의 고유한 말과 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큰 자랑이며 커다란 힘입니다. 조선인민은 …… 자기의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민족문화를 창조할 수 있었으며 자기 민족의 아름다운 풍습과 전통을 계속 간직하여 올 수 있었습니다.” 김일성,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1964), 『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1~4쪽.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민족개념의 구성에 남한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 주체사상의 체계화는 김정일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이루어진다.

백년대계를 위해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가장 철저한 애국적 방안이라는 것을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 민족문제의 해결은 계급해방이나 인간해방 문제의 해결에 앞서야 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민족이 있고서야 혁명과 건설도 있을 수 있고 사상과 리념도 있을 수 있으며 민족을 떠나서는 그것이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주의를 하든 공산주의를 하든 그 어떤 사상과 리념을 신봉하든지 간에 무엇보다 먼저 민족을 찾아야 하며, 나라의 자주성을 지켜야 합니다(『로동신문』, 1980년 10월 14일).

김중린의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 북한의 정치·사상의 모든 부문에서 민족이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북한 민족개념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김정일의 설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정일은 1986년 7월 15일 발표한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한다. 또한 민족을 “민족을 이루는 것은 핏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이 가운데서도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로 됩니다”³²⁾라고 하여 완전히 독자적인 민족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1985년판 『철학사전』을 보면,

민족이란 핏줄과 언어, 령토와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 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 씨족공동체가 해체된 다음 사람들이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장구한 역사적인 투쟁과정에서 핏줄과 언어, 령토와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결합되면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민족은 사회적 요인의 작용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이다.

라고 하고 있다. 위의 민족개념 규정에서 보면, 민족의 형성 요소는 핏

32) 리규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개념에 대한 이해”, 『사회과학』, 제2호(1986), 6쪽.

줄, 언어, 영토, 문화로 한정되고 심리상태와 경제생활의 공통성은 빠져 있다. 경제생활의 공통성이 제외된 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분단된 한반도가 경제생활의 공통성을 향유하지 않지만 의연히 한민족이며, 연방제로 통일이 되더라도 경제생활의 공통성이 곧바로 실현될 수 없는 조건에서도 민족통일은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민족주의론 1980년대에 들어와 마르크스-레닌주의, 스탈린주의적 틀에서 점차 벗어났으며 자신들의 독자적인 민족주의론을 형성해 가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민족주의론의 가장 큰 특징은 민족의 형성 요인으로서 계급 국가의 발생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³³⁾ 즉, 그들에게 민족은 국가정권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민족은 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는 국가정권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조직되고 관리되는 사회적 집단으로 될 때에만 사람들의 사회생활의 기본 단위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이 사회생활 단위라고 할 때 그것은 민족을 포괄하는 민족국가를 말하는 것이다”³⁴⁾라고 하여 국가에 의한 민족의 형성을 말하고 있다. 이는 앞장에서 논한 국가론적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그 기원을 근대국가의 발생 이전의 계급국가 발생으로까지 소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민족주의는 국가에 대한 관점과 입장으로 표출되며, 이런 점에서 민족은 곧 국가라는 도식이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민족개념의 변화는 이제 ‘민족 자주성론’이라는 형태로 표출되면서 주체사상의 자주성 테제가 민족문제 그 자체로까지 확장된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민족문화 유산에 대한 강조와 소련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의 북한식 사회주의의 독자성과 우월성을 표현한 ‘우리

33) 『철학사전』(평양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85).

34) 리순덕, “민족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 리해”, 『철학연구』, 제3호(1995), 41쪽.

식 사회주의'가 발표되면서 북한의 민족 자주성에 대한 강조는 가장 중요한 사상교양과 선전의 초점이 되고 있다.

김정일은 1991년 5월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가장 포괄적인 사회집단은 나라와 민족입니다. 나라와 민족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결합체이며 운명공동체입니다. 혁명과 건설은 나라와 민족은 단위로 하여 실현되어 나갑니다. 인민대중은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자기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해 나갈 수 없습니다. 주체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것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요구로 내세웁니다.

김일성은 몇 달 뒤 “우리 민족의 대단결의 이룩하자”라는 글에서 지금까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게 민족을 강조하고 있다.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는 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 민족은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온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며 사회생활 단위입니다. 사람들은 력사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운명을 개척하여 왔습니다. 자주성은 사람의 생명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 개별적 계급, 계층의 사상과 리념을 옹호하고 리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족공동의 위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계급과 계층은 민족의 부분인 것만큼 어떤 계급과 계층도 민족공동의 리익을 떠나서는 자기의 리익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이 있을 수 있으며 민족의 리익이 보장되어야 계급의 리익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위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계급, 계층보다 민족이 상위의 개념으로 놓이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조건에서 계급해방과 인간해방도 불가능하다는 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북한에서의 민족개념은 국제적 정세와 국내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체사상의 체계화 과정을 통하여 주체사상에 따라 해석, 재해석되는 과정을 밟아 왔다. 그리고 현재는 완전히 주체사상에 의해서만 민족의 개념을 해석하고 있으며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주체사상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특히,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자주성’의 원칙을 민족단위에까지 확장함으로써 김일성의 지도를 받는 ‘북한’ 민족은 우월한 민족의 지위로까지 상승할 수 있게 되었다.³⁵⁾

2) 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

1980년대에 들어와 북한의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자신의 체제를 규정함에 있어서 ‘우리식 사회주의’와 ‘우리민족제일주의’³⁶⁾로 대표되는 독자성의 강조이다. 우리민족제일주의는 1986년 김정일의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김정일은 “세계혁명 앞에 우리 당과 인민이 지닌 첫째가는 임무는 혁명의 민족적 임무인 조선혁명을 잘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혁명에

35)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한 이듬해인 1995년부터 ‘김일성 민족’이란 표현을 가끔씩 사용하고 있다. 이는 민족제일주의에서 주장한 수령의 지도를 받는 민족으로서 북한 ‘민족’을 우월한 지위로 올려 놓는 것과 관련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종석은 북한의 민족주의가 전한반도 차원으로 민족주의로서의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자칫 초체제적인 ‘우리 민족’과 위대한 수령의 지도를 받는 우월한 ‘북한 민족’의 긴장관계를 가진다고 한다.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196~203쪽.

36) 우리민족제일주의론은 ‘조선민족제일주의론’ 혹은 김정일의 논문에 의하면 ‘고려민족제일주의론’ 등과 함께 쓰이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민족제일주의론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충실하자면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은 곧바로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로 될 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참다운 애국주의자인 동시에 참다운 국제주의자입니다”³⁷⁾라고 하여 민족주의자로서 자신들을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에 애국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여전히 스탈린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완전히 청산하지는 못하고 있다. 1989년에 출판된 『우리민족제일주의론』에 의하면 “우리민족제일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투철한 민족자주정신”이며, 민족자주정신이 우리민족제일주의의 진수라고 밝히고 있다.³⁸⁾ 또한 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민족의식 발전의 최고 형태로 주장함으로써 이를 보편적인 시대정신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또한 민족은 곧 인민대중이라는 도식을 도입하면서 민족에 대한 사랑을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으로 등치시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민족관에 대해서 진덕규는 북한이 민족주의를 사회주의와 등치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³⁹⁾

김성철은 북한의 우리민족제일주의론에 대해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매우 방어적인 측면에서 합리화하는 논리라고 주장한다.⁴⁰⁾ 그러나 동구 사회주의의 대격변기가 1988년 이후부터 시작되었으며, 1989년 이후에야 소련을 위시한 동구 사회주의 본격적인 대변혁이 시작되었던 점으로 보아 동구 사회주의 변화에 따른 체제방어적 논리로서 우리민족제일주의론이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동안 북한이 발전시켜왔

37) 김정일,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 『김정일 선집』, 제8권(평양 :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8), 444쪽.

38) 고영환, 『조선민족제일주의론』(평양 : 평양출판사 1989), 67쪽.

39) 진덕규, 『북한 통치이념에 있어 민족주의 원용에 대한 분석』, 105쪽.

40) 김성철,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화』(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3), 70쪽.

던 주체사상에 의한 민족주의적 해석의 한 측면과 민족개념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된다. 다만, 우리민족제일주의론은 이후 우리식 사회주의론과 함께 동구 사회주의 사회변혁의 적극적인 대응논리로서 기능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는 김정일의 1989년 논문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이 민족제일주의 정신을 가지게 하는 사회적 기초이며 그것을 더욱 빛내여 나가자는 것이 바로 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발양시키는 목적입니다. 민족제일주의의 영예를 떨쳐나가는 길은 곧 우리식의 사회주의를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길입니다”⁴¹⁾라고 하여 민족제일주의가 결국 사회주의 체제 고수와 발전을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민족주의 논리가 저발전 국가들에서 국가 정당성과 근대화를 위한 대중동원의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했던 것과 유사한 측면을 보여 준다. 소련이 붕괴한 뒤에도 김정일은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라고 하여 민족제일주의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⁴²⁾

한편,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이미 김정일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논할 때 등장한 것이나, 김정일이 사회주의 체제의 대변혁을 목격한 다음인 1991년 5월 5일에 발표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이후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⁴³⁾ 여기에서 김정일은 사회주의가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체제는 수령·당·대중이 공고한 결합체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제국주의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자신들의 체제는 나

41)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9).

42) 김정일, “일심단결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김정일 선집』, 제13권(평양 :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8).

43) 전상인, 『북한 민족주의 연구』, 107쪽.

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것을 첫째가는 요구로 내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였으며, 자주·자립·자위의 원칙을 관철하여 왔기 때문에 반사회주의적 혁명은 자신들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⁴⁴⁾ 이처럼 우리식 사회주의는 다른 사회주의와의 차별성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그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해 그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자신들 주체사상의 우월성을 선전하던 태도에서 이제는 새로운 과학적 기초 위에 새로운 사회주의를 세워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과학적 기초 위의 사회주의는 바로 김일성이 창조한 주체사상에 의해 밝혀진 사회주의라고 한다. 김정일은 1994년에 발표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사회주의를 새로운 과학적 기초 위에 올려 세우는 것은 선행한 사회주의 학설의 역사적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뿐 아니라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왜곡과 제국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하여서도 매우 절박한 과제로 나섰다. 사회주의를 새로운 과학적 기초 위에 올려 세울 데 대한 역사적 과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이론을 독창적으로 전개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게 되었다”라고 주장한다. 뒤이어 그는 과학적으로 체계화한 사회주의는 다른 아님 사람 위주의 사회주의,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임을 천명하고 있다.⁴⁵⁾

이와 같은 우리식 사회주의는 결국 소련, 동구 사회주의 붕괴 이후 자신들 체제를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구별하고 자신들이 건설하고 있는 사회주의는 다른 사상과 이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붕괴하거나 사회주의의 후퇴란 있을 수 없다는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자 또한 방어적 논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우리식 사회주의에서 보이는 것은 기

44)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1).

45)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4).

존 노선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정일이 위의 논문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는 데서 사상개조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워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는 방법 외에 그 어떤 다른 묘술이란 있을 수 없다.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에 배치되며 그런 방법으로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없다”라고 자신들의 기존의 노선을 고수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⁴⁶⁾

한편, 1997년에 발표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에서 김정일은 “사회주의는 계급적 위업인 동시에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위업”이라고 하면서 기존의 사회주의가 민족자주 위업에 소홀히 한 결과 계급적 기반마저 약화되고 결국에는 붕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⁴⁷⁾ 이는 편협한 계급주의의 시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해 왔던 지난날의 사회주의가 비과학적이며, 자신들이 주장한 민족자주 위업과 결부된 계급투쟁노선이 정당하고 이것이 비로소 사회주의의 과학성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4년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단순히 ‘사회주의가 인류의 과업이며 과학적인 것’에서 더 나아가 북한이 내놓는 ‘주체형의 사회주의가 과학임’을 주장했던 것의 연장선상에 이해할 수 있다.

동구 사회주의의 소멸 이후 북한은 스스로를 ‘사회주의의 보루’⁴⁸⁾로

46) 이러한 표현은 사회주의의 개혁·개방에 대한 간접적 비판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사실, 김정일은 1983년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개방특구를 직접 방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식 개방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2부까지만 발표되고 공개되지 않았던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의 3부를 보면 중국식 농촌개혁, 공장관리 등 중국식 개방에 대한 강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은 결코 민족자립경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김정일, 1986).

47)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로동신문』, 1997년 6월 19일.

48) 이전에 북한은 자신들을 사회주의의 ‘동방초소’라고 지칭했었다. 이후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부터는 ‘사회주의의 보루’라고 지칭하고 있다.

지칭하면서 자신들의 체제의 우월성과 사회주의에 대한 고수를 다짐하고 있다. 김정일이 밝힌 것처럼 ‘세계 일체화’에 대한 내외의 흐름에 대해서도 기존 노선의 고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⁴⁹⁾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커다란 변화를 보인 민족주의적 색채는 좀더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 민족주의에 대한 일대 재평가와 단군릉, 동명왕릉, 왕건릉의 발굴과 개축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4. 1990년대 북한 민족주의의 내용과 특징

1) 민족주의의 재평가

1990년대 들어와 북한은 민족주의에 대해 일대 재평가를 내린다. 비록 공식적인 문서나 발표는 아니었지만, 김일성의 담화에 의해 표현된 민족주의의 재규정과 평가는 기존의 모습에서 훨씬 더 민족주의 친화적인 것이었다.

김일성이 민족주의에 대해서 일대 재평가를 내린 것은 지난 1991년 8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꾼들과 범민련 북측본부 성원들과 한 담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에서이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조국통일의 주체는 조선민족이며, 사람들이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민족의 성원으로서 가지는 공통적인 사상감정이라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민족주의를 평가한다.

49) 따라서 관심이 되는 북한의 개방은 그들의 자주성, 주체성, 민족성을 고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단히 조심스럽고, 제한된 개방 노선일 가능성이 높다.

원래 민족주의는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진보적인 사상으로서 발생하였습니다. 신흥브루조야들이 민족주의 가치를 들고 민족운동의 선두에 섰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민족주의가 처음부터 자본가계급의 사상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부르조야민족운동시기에는 인민대중의 리익과 신흥부르조야지의 리익이 기본적으로 일치하였으며 따라서 민족주의는 민족공동의 리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후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부르조야지가 반동적 지배계급으로 되면서 민족주의는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적 도구로 되었습니다. 부르조야민족주의는 진정으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참다운 민족주의와는 배치되는 사상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단일 민족국가인 우리 나라에 있어서 진정한 민족주의는 곧 애국주의로 됩니다 …… 이런 의미에서 나는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고 국제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다.⁵⁰⁾

여기서 김일성은 참다운 민족주의 사상은 진보적인 것이며 따라서 우리 민족의 통일은 참다운 민족주의 사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그가 그 자신을 민족주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1986년 김정일이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주창하면서도 “공산주의자는 민족주의자로 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것에서 더 나아간 언급이다. 이는 이제 북한이 민족주의를 부정적인 의미를 탈각시키고 ‘참다운 민족주의’는 공산주의와도 접목되는 진보적인 사상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김일성의 언급 이후 『철학연구』 1991년 4호에서는 “민족주의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하여 온 민족이 단결하여 투쟁할 데 관한 사상이다”라고 규정하고 “민족 공동의 리익을 반영한 사상,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는 민족성원들의 공통적인 사상감정이 바로 민족주의이다. 그러므로 민족주의는 원래가 인

50) 그러나 김일성의 이 발언은 1996년 『김일성 저작집』, 제43권에서 ‘애국자’로 바뀌었다.

류 역사발전과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에 이바지하는 진보적인 사상으로 출현하였다”라고 강조한다. 반면, “부르조아민족주의는 민족 공동의 리익을 희생시켜 자본가계급의 협애한 계급적 리익을 추구하는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인 사상이다. 그것은 진정으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참다운 민족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라고 하여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⁵¹⁾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민족)국가의 소멸에 대해서도 “민족은 오늘날에 있어서 사회생활의 기본단위로 될 뿐 아니라 미래 공산주의 사회에 가서도 사회생활의 기본단위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⁵²⁾라고 하여 민족이나 국가의 소멸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민족을 영속적인 실체로서 바라보는 것에 기초해서 민족주의 역시 부정되고 배격되어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민족주의의 진보성을 긍정적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일성의 위의 언급이 통일 관련 일꾼들 앞에서 행해진 연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반도의 통일이념으로서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이를 통해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고자 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김일성이 위의 담화 이후 곧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⁵³⁾을 발표하는 등 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⁵⁴⁾ 따라서 북한에서 민족주의의 재평가는 한반도의 통일문제, 국제적인 상황변화에 따른 계급주의적

51) 강승춘, “주체적 민족관”, 『철학연구』, 제4호(1991), 7쪽.

52) 리순덕, “민족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 리해”, 42쪽.

53) 김일성,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1993), 『조선중앙연감』(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94).

54) 여기에서 김일성은 사상과 이념, 제도를 초월한 민족대단결을 주장하면서, 통일 후에도 개인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 국가적 소유 등을 다같이 인정하고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방제 통일에 따르는 한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10번째 강령에서 밝히고 있듯이 어떤 사람이든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한 대단결에 중심을 두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노선의 일정한 완화, 대외적 자주성에 대한 표현으로서 제기되고 있다고 보인다. 즉, 한반도의 통일 이념으로서 민족주의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민족주의를 민족적 긍지, 애국심, 자주정신 등으로 해석하여 유구한 민족적 전통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보여진다.

2) 민족문화유산과 민족사적 전통성

북한이 민족·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은 일련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발굴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이를 예외 없이 우리 민족의 위대성 혹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와 연결시키고 있다. 특히, 북한이 우리 민족사의 전통성의 맥을 잇는 국가로 간주하는 고조선, 고구려, 고려에 대한 강조는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강조의 초점이 되고 있다. 우선, 북한은 이미 일찍부터 사회주의적 문화에 대하여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다’는 원칙을 천명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예술, 문학, 영화, 인민생활에 대한 개조를 진행시켜 왔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민족명절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져 설, 추석, 단오 등을 부활하여 전통놀이와 전통음식 등을 해먹기도 한다.⁵⁵⁾

이러한 민족문화에 대한 강조는 1993년에 동명왕릉 개건에 이어 단군릉의 발굴에서 절정을 이루게 된다. 1993년 동명왕릉 개건에 대한 보도는 “아세아 동방의 광활한 령토를 차지하고 약 1,000년을 존재한 고구려는 자주성이 강한 강성대국이였다. 고구려 시조왕의 무덤인 동명왕릉은

55) 김귀옥·정영철, “북한 ‘인민’ 생활세계 연구”, 『'96北韓 및 統一研究 論文集(IV) ; 北韓實態 分野』(서울: 통일원, 1996). 추석 성묘는 1972년에, 구정과 단오는 1989년부터 공식적으로 부활되었다.

로동당시대에 훌륭히 개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애국심을 북돋아주는 만년대계의 력사적 재보로 되었다”⁵⁶⁾고 하고 있다. 이는 동명왕릉의 복원이 단순히 민족문화유산의 보호를 넘어서서 민족적 긍지와 애국심을 높이기 위한 민족사적 전통성의 상징임을 알게 한다. 한편, 단군릉의 발굴은 우리 민족 원시조라는 점에서 남북한 모두에게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993년 10월 2일자 『로동신문』에 실린 단군릉 발굴의 보도는 이런 점에서 북한의 민족사적 전통성 복원의 최고점에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⁵⁷⁾

북한이 단군릉 발굴과 함께 주요하게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우리 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이다. 둘째, 최초의 고대 국가인 고조선은 기원전 5,000년 전에 이미 동방에서 첫째가는 문명국가를 이루었다. 셋째, 평양은 고대 문화의 중심지이다. 넷째, 우리 민족은 고대부터 고유한 문자를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다섯째, 우리 민족은 고조선에서 시작된 민족사적 전통성을 간직하고 있다.⁵⁸⁾ 이처럼 단군릉의 발굴을 계기로 북한은 한반도의 역사적 발전을 고대 평양으로부터 출발시키고 있으며, 한반도의 역사를 북방, 즉 고조선 - 고구려 등으로 이어지는 북방중심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⁵⁹⁾

단군릉 발굴 후 열린 1993년 12월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민족문화유산을 옮겨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를 채택하고 민족문화유산의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건

56) 『조선중앙연감』(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94).

57) 단군릉에 대해서는 고고학적·역사학적 문제이므로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그것의 진위 여부보다는 단군릉을 통해 북한이 의도하는 데에 중심을 두겠다.

58) 북한의 단군릉 발굴 관련 학술회의에 대한 자료는 『북한의 ‘민족주의’ 선전자료집』(서울 : 국가안전기획부, 1995)을 참조.

59) 이미 북한은 우리 역사의 주체를 고조선, 고구려, 발해, 고려로 이어지는 북방중심설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 역사가 신라에 의해 상당히 왜곡·축소되었으며, 사대주의적 관점의 역사로 일관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에서는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들을 민족자주의식과 애국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우리 인민의 지향과 정서에 맞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여 온 겨레의 민족적 대단합을 실현하여 조국통일 위업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최근에는 단군릉이 발굴되어 …… 우리 민족의 원시조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되찾게 되었다. 이것은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 주고 민족사를 빛내여 나가는 데서 하나의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조선민족의 역사는 5천년을 헤아리지만 오늘처럼 인민들의 민족적 자존심이 높아지고 나라의 주체성이 강화된 때는 일찌기 없었다. 이것은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 발전시킬 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정책의 위대한 승리이다.”라고 하여 민족사적 전통성과 주체성이 현재의 북한이 가장 높은 경지에 있음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최근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민족주의가 민족자주성, 주체성 그리고 인민들에 대한 자주주의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 또한 단군이 실제한 인물임을 통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민족개념과 우리 민족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단군은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 주민들이 아직도 미개한 원시상태에 처해 있던 약 5,000년 전에 고조선 국가를 세움으로써 우리 나라를 선진 문명국으로 만들었고 고조선 각지 주민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는 첫걸음을 떼게 한 걸출한 인물이었다”⁶⁰⁾라고 하여 우리 민족의 유구성과 단일성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단군릉 발굴 이후 1994년 1월에는 고려 시조인 왕건릉을 개건함으로써 마침내 고조선의 시조, 고구려의 시조, 고려의 시조에 대한 발굴과 개건을 완성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일련의 문화유산에 대한 강조는 우리 민족의 원시조로서

60) 조선력사과학연구소,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 『력사과학』, 제3호(1994), 51쪽.

단군, 1,000년 이상을 동방의 가장 강성한 대국이자 자주국가였던 고구려, 우리 민족의 최초의 통일국가로서의 고려라는 가장 상징성이 강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즉, 북한은 민족주의를 진보적인 사상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독자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족대단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북한이 단군릉 발굴을 계기로 이를 자신들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고자 한 의도도 있지만, 그들이 밝히고 있듯이 자신들 정권의 정통성은 항일 혁명전통과 주체의 혁명전통에서 구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즉, 북한은 “민족사의 명맥이 고조선에서 뿌리내린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고조선 - 고구려 - 고려로 이어지는 민족사의 정통에 대하여 논한 것이지 누구도 우리 공화국 정권의 정통이 고조선에 뿌리박고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 왜냐하면 민족사의 정통과 정권의 정통은 별개의 문제이며 우리 공화국 정권이 계승하고 있는 것은 고조선 - 고구려 - 고려의 정통이 아니라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⁶¹⁾ 따라서 북한에서 민족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보여 주는 일련의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강조는 우리 민족사의 전통성을 확인하고 확립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여기에 덧붙여져서 체제와 정권이 가지는 정책적 정당성의 우월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민족사적 정통성과 자주성

북한이 1990년대에 민족주의를 재평가하고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발굴을 통해 이를 전통문화로 자리매김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대외적 자주

61) 허종호, “단군 및 고조선 역사 연구에서의 몇 가지 기본문제들과 그 해명”, 『역사과학』, 제2호(1996), 45쪽.

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단군릉의 발굴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민족의 기원과 고대 국가의 성립을 중국과 동일한, 아니 오히려 중국보다 더 이른 것으로 위치지움으로써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개혁과 개방으로 치달으면서 사실상 사회주의로 보기 어려운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내부적 비판이 증가되고 있는 사실과도 관련된다. 또한 김정일의 1997년도 논문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계 일체화에 대한 거부와 자주성의 고수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나 세계 일체화에 대한 거부의 표현만으로 민족주의가 재평가되고 민족문화유산의 발굴 등을 통한 민족사적 전통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북한의 민족개념의 재규정과 민족주의에 대한 재평가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일정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전상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현 국면의 타개를 위한 전략적이고도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보기는 어렵다.⁶²⁾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해서 인류가 만들어 놓은 진보적인 사상을 자체 내에 포섭하면서 발전하는 사상이라고 정의한다. “주체사상은 사상 분야에서 편협한 배타주의를 결정적으로 배격합니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사상이라면 어느 민족, 어느 인민이 창조하였는가에 관계없이 그 가치를 공명정대하게 평가하고 그것을 자체의 사상체계 안에 포섭해 나가고 있습니다”⁶³⁾라고 하고 있다. 이는 민족주의 역시 자주성 실현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진보적인 사상으로 평가되고 그것을 자체에 포섭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북한에서 『주체사상 총서』(10권)가 완간됨으로써 주체사상이 완전한 체계로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 바로

62) 전상인, 『북한 민족주의 연구』, 126쪽.

63)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1985년을 전후한 시기였다. 결국 이 시기에 민족주의의 주체사상에 의한 해석이 본격화되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의 민족주의론은 일시적이고 상황에 의존하는 미봉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역사적 과정을 거친 흐름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민족주의론의 강화를 위한 자원을 어디에서 동원할 것인가이다. 그것은 바로 민족의 오랜 역사적 뿌리일 수밖에 없었다. 민족주의의 감정이 자신들의 오랜 뿌리, 공동의 조상에 대한 상상과 고유한 전통에 강하게 뿌리박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족적 긍지에 대한 강조는 결국 민족주의의 강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민족제일주의 정신의 기초로 삼고 이를 통해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으로 연결짓고자 한다.⁶⁴⁾

5. 결론을 대신하여

북한의 민족주의 전개에 가장 큰 특징은 우선 그것이 한반도적 특수성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스탈린적 민족개념의 변화 과정에서 혈연, 언어 등의 강조와 경제생활의 공통성이 빠지면서 우리 민족의 현상태를 반영하는 민족개념이 도출되고 있는 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는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적 민족관과 결별하고 자신들의 지도

64) 최고인민회의의 결정 7항에 따르면 민족문화유산의 보존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 교양에서 커다란 감화력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최고인민회의,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북한의 ‘민족주의’ 선전 자료집』(서울 : 국가안전기획부, 1995).

사상인 주체사상의 의거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이 현재 처하고 있는 조건에서 통일문제와 결부되어 민족주의론이 생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북한은 1980년에 주체사상을 공식적인 지도사상으로 정립하였으며, 1992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남아 있던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였다.⁶⁵⁾

다른 한편, 북한이 1990년대 들어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체제 유지에 따른 민족 정통성의 강화라기보다는 중국 등을 겨냥한 대외적 자주성의 확보, 세계 일체화라고 표현되는 지구화에 대한 사회주의 노선의 고수를 위한 민족성의 강조가 우선적인 이유라고 보여진다. 이는 북한이 1990년대 들어와 갑자기 민족주의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였다기보다는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평가를 수정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따라서 대외적인 상황변화가 이러한 재평가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했을 수는 있었어도 그것을 근본적인 변화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또한 이러한 민족주의의 재평가가 일시적이고 미봉책으로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북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북한 민족주의의 변화는 한반도 통일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다. 한반도의 특수한 사정과 그들의 남한 혁명에 의한 한반도 통일 노선의 어려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에 따른 일원론적 통일론의 폐기, 그리고 이에 따른 통일이념의 모색이 민족주의에 좀더 관심을 갖고 강조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의 통일이념이

65) 이종석은 1992년의 사회주의 헌법 개정에 대해 사회주의의 낮은 단계를 설정한 실용주의적 입장으로의 전환으로 판단한다(이종석, 2000 : 286~287). 그러나 필자의 판단은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색채를 완전히 해소하고 주체사상에 근거한 헌법체계를 세우는 작업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김정일의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일정한 북한 정치체계의 변화 등의 목적이 있음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결별을 헌법적 차원에서 마무리짓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보여진다.

결국은 민족주의를 근간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광범위한 민족통일전선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사상공세라고도 할 수 있다. 김일성이 민족주의를 진보적인 사상으로 규정하면서 민족구성원도 “정신노동자, 육체노동자 등 민족의 이익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여한 사람이라면 다 민족이다”라고 언급한 것은 민족 이익이라는 커다란 틀에서 한반도 통일의 공통분모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도이다.⁶⁶⁾ 다른 한편, 이는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 붕괴로 인한 국제적인 고립과 한국의 의도적인 흡수통일정책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 사회주의의 다른 사회주의와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지점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는 북한 사회주의의 독자성, 우월성에 대한 주장에서 나아가 과학성으로까지 연결되었다.

결국, 북한 민족주의의 변화는 통일, 사상, 환경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그러나 그 변화가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는 행위주체의 몫으로 남는다. 최근에 보여지는 북한 민족주의의 변화는 남한과의 괴리감을 더욱 크게 할 수도 혹은 그 접점을 넓힐 수도 있는 열려진 공간으로 남아 있다. 괴리감의 확대는 북한의 민족주의가 결국 수령론과 결합하여 ‘김일성 민족’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사정과 관련되며, 접점의 확대는 계급성과 정치성보다는 민족성을 우선시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우리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그 부정적 측면만을 과대 해석하는 것은 분명 피해야 할 것이다.

66) 또한, 김일성은 민족대단결 10대 강령에서도 통일을 위한 전민족적 대화 및 과거를 불문하고 통일문제에 헌신하는 사람은 모두 우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강승춘, “주체적 민족관”, 『철학연구』, 제4호(1991).
- 고영환, 『조선민족제일주의론』(평양 : 평양출판사, 1989).
- 김일성,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 『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 _____,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_____,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 『조선중앙연감』(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94).
-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9).
- _____,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_____, 『사회주의는 과학이다』(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_____,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로동신문』, 1997년 6월 19일.
- _____,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 『김정일 선집』, 제8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일심단결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1992), 『김정일 선집』, 제13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리규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개념에 대한 이해”, 『사회과학』(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6).
- 리순덕, “민족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 리해”, 『철학연구』, 제3호(1995).
- 사혁순, “민족문화 전통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 리해”, 『철학연구』, 제4

호(1994).

조선력사과학연구소,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 『력사과학』, 제3호(1994).

최고인민회의,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북한의 ‘민족주의’ 선전 자료집』(서울 : 국가안전기획부, 1995).

허종호, “단군 및 고조선 력사 연구에서의 몇 가지 기본문제들과 그 해명”, 『력사과학』, 제2호(1996).

『대중정치용어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64).

『정치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0, 1973).

『조선말 대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60).

『조선중앙연감』(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 1994).

『철학사전』(평양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70, 1985).

<2차 자료>

국가안전기획부, 『북한의 ‘민족주의’ 선전자료집』(서울 : 국가안전기획부, 1995).

김귀옥·정영철, “북한 ‘인민’생활 연구”, 『1996 북한 및 통일 연구 논문집(IV) : 북한실태 분야』(서울 : 통일원, 1996).

김성철,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화』(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3).

김용직, “민족주의, 국제관계, 근대성”,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영역과 쟁점』(서울 : 나남출판사, 1995).

김정훈, “남북한 지배담론의 민족주의 비교 연구 : 역사적 전개와 동질 이형성”(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노태돈, “한국민족 형성시기에 대한 검토”, 『역사비평』, 겨울호(1992).

박호성,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서울 : 당대, 1997).

- 신용하, “민족 형성의 이론”, 신용하 편, 『민족이론』(서울 : 문학과지성사, 1985).
- 신옥희, “분석수준과 분석단위에 관한 새로운 논의”, 김달중 · 박상섭 · 황병무 공편,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영역과 쟁점』(서울 : 나남출판사, 1995).
- 우 정, 『분단시대의 민족주의』(서울 : 다나, 1996).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 역사비평사, 2000).
- 전상인, 『북한 민족주의 연구』(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조 민, 『한국민족주의 연구』(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진덕규, 『북한 통치이념에 있어 민족주의 원용에 대한 분석』(서울 : 통일원, 1991).
- 찰스 암스트롱, “북한 문화의 형성 : 1945 ~ 1950”, 『현대북한연구』, 제2권 1호(1999).
- 최종고, 『북한법』(서울 : 박영사, 1993).
- Anderson, Benedict, 윤형숙 옮김,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서울 : 사회비평사, 1991).
- Breuilly, John, *Nationalism and the State*(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 Davis, Horace B., 백낙청 역음, “마르크스 민족이론의 비판”, 『민족주의란 무엇인가』(서울 : 창작과비평사, 1982).
- Gellner, Ernest, *Culture, Identity, and Politics*(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_____, *Nations and Nationalism*(New York :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 Giddens, Anthony, 진덕규 옮김, 『민족국가와 폭력』(서울 : 삼지원, 1991).
- Greenfeld, Liah & Chirot, Daniel, “Nationalism and Agression”, *Theory and Society*, Vol. 23/1(Kluwer Academic Publishers, 1984).
- Hobsbawm, Eric J., 강명세 옮김,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서

- 을 : 창작과비평사, 1994).
- _____, “Introduction : Inventing Tradition”, in Eric Hobsbawm & Terence Ranger(eds.), *The Invention of Tradition*(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hn, Hans, 백낙청 역, “민족주의의 개념”, 『민족주의란 무엇인가』(서울 : 창작과비평사, 1981).
- Kolakowski, L., 임지현 역, “마르크스주의 철학과 민족의 실체”, 『민족문제와 마르크스주의자들』(서울 : 훈겨레, 1986).
- Lenin V. I., 편집부 역,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자결권”, 『마르크스 - 레닌주의 민족이론』(서울 : 나라사랑, 1989).
- Linz, Juan J., & Stephen, Alfred, “‘Stateness’ Nationalism, and Democratizatio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Baltimore : Johns Hopkins University, 1996).
- Migdal, Joel S., “Studying The State”, in Mark Irving Lichbach & Alan S. Zurkerman(ed.), *Comparative Politics*(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Smith, Anthony D., *The Ethnic Origin of Nations*(New York : Basil Blackwell, 1986).
- _____, 임지현 옮김, “민족주의와 고전사회학 이론”, 『민족문제와 마르크스주의자들』(서울 : 훈겨레, 1986).
- _____, “The Nation : Invented, Imagined, Reconstructed?”, in Marjorie Ringrose & Adam J. Lerner(eds.), *Reimagining The Nation*(Buckinghamham : Open University Press, 1993).
- Stalin, 편집부 역,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 『마르크스 - 레닌주의 민족이론』(서울 : 나라사랑, 1989).
- Tilly, Charles, 이향순 역, 『국민국가의 형성과 계보』(서울 : 학문과사상사, 1994).

_____, “States and nationalism in Europe 1492~1992”, *Theory and Society*,
Vol. 23/1(Kluwer Academic Publisher, 1994).

Vogler, Carolyn M., *The Nation State : The Neglected Dimension of Class*(Aldershot
: Gower, 1985).

(Abstract)

Nationalism in North Korea : Past and Present

Young Chul Chung(Dongkuk University)

Nationalism in North Korea has shown dramatic changes since 1945. The establishment of '*Juche*' is arguably a historic turning point in North Korea. In the early period, North Korean nationalism was similar to Stalinism in the former Soviet Union. However, the declaration of '*Juche*' in 1955 and '*Juche line*'(*Juche nosun*) in the 1960s changed the concept of nation in a North Korean context. This does not mean that North Korea accepts and conceives nationalism in a positive light, but rather conceives and uses it as a means to promote 'Socialist Patriotism' or 'Patriotism'.

Since 1960s, North Korea has begun to establish its own concept of nation in the place of Stalinism. The common 'language' and 'blood-relation' were the most essential concepts reflecting the particularity of the people on the Korean peninsula.

In 1980s, the concept of nation was systemized. North Korea defined that nation is a historical community based on a common language, blood relations and place. The factors that caused the change in the concepts of nation and

nationalism were the formulation and establishment Juche ideology, division of the peninsula and request for reunification, and change of external conditions. Since the 1980s, North Korean Nationalism has been expressed as '*Urisik* Socialism' and '*Uriminjok Jeiljui*'. However, these should not be thought of only as a response to the crisis of socialism(i.e., collapse of Communist bloc) because the formulation of the two began prior to the 1980s, especially in the case of '*Urisik* Socialism', which began in 1978. It is true, however, that these concepts transformed to 'regime-defense' logic after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bloc.

Nationalism, as it is understood in North Korea, underwent further redefinition in the 1990s. In 1991, Kim, Il Sung distinguished 'true nationalism' from 'bourgeois nationalism', and furthermore, he contended that true nationalism is progressive. However, as in its redefinition, North Korean nationalism could be in conflict with South Korean nationalism, as is hinted by the expression of 'Kim Il Sung Nation'. The change of nation and nationalism in North Korea will have profound implications on the construction of common socio-cultural values for reunification in future.

Key Words : nation, nationalism, Urisik socialism, Uriminjok Jeiljui, true nationalism